

“마르지 않는 눈물...진상 규명이 진짜 위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세월호·학동참사 희생자 등 추모객 발길 ‘애도 물결’ 추모 공연 유가족 오열...김민석 총리에 염원 메시지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9시 무안공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양소에는 침묵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29일 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는 국화꽃과 손편지가 가득 놓였고, 추모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묵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검은색 계열의 추모 보장을 갖춰 입은 시민들은 제단에 국화를 올린 뒤 고개를 숙였고, 휠체어에 아들을 태운 채 분향소를 찾은 한 어머니는 헌화 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짧은 묵념이 끝난 뒤에도 일부 추모객들은 분향소 주변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분향소 인근에서는 시민 5명이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특별하라’, ‘진실 없는 추모는 기만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6·9 광주 학동 붕괴사고 유가족도 함께했다. 이들은 헌화 후 1층 만남의 장소에 모여 추모 행사를 지켜보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 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 아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항 1층 대합실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과 탑처럼 쌓인 여행 가방이 설치 작품으로 전시됐다. ‘캐리어 179: 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여행 가방 더미 앞에 선 시민들은 발길을 떼지 못하고, 일부는 참사 당시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전 9시 3분, 사고 발생 시각에 맞춰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공식 추모식이 시작됐다.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기독교·불교·천주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다.

교·원불교 등 종교계도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 기도를 올렸다. 추모 주제 공연 ‘집으로 오는 길’에서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영상 속 ‘모든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이 티켓은 당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

고 탑승권이 무대 앞에 놓일 때마다 “들려 내라”는 울부짖음이 이어졌고, 공연자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당신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의 절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자막을 깔으며 추모 공연이 마무리됐고,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유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메시지 박스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추모식이 끝난 뒤에도 많은 시민들은

공항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편 태극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방위각제공사(로컬라이저)를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Weather forecast table show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Gwangju, and Jeju.



Table showing detailed weather forecasts for specific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ju,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Table showing bus departure times for routes like Gwangju to Jeonnam and Jeonnam to Jeju.

“1년째 진상규명 표류...의문 해소해야”

민변, 사조위 신뢰 훼손 지적...총리실 소속 이관 주장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179명이 돌아오지 못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중대 시민참사임에도, 사고 조사는 지연되고 있고 유족과 국민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사조위 조사 방식과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사조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가장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돌리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족 등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무안공항 방위각제공사(로컬라이저) 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물’이

라고 내린 판단을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 기관이 방위각제공사설을 위법 시설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이년 참사의 원인은 기계 결함, 조류 퇴치 실패, 관제 실수, 방위각제공사설 문제뿐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각제공사설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며, 일부 요인에 책임을 국한해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조위를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희생자 179명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왜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고 원인이 명백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족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유가족 쉼터에 남은 절규...1년 지나도 ‘멈춤’

179컬레 신발·여행기방 마중...추모 계단 등에 메시지 가득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무안국제공항의 시간은 여전히 그 날에 멈춰 있다.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출국장 한 칸에 조성된 유가족 쉼터 앞에는 현수막과 배너가 놓였다.

“179명의 안타까운 죽음, 유가족의 눈물은 1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다”, “왜 아무도 이 비극에 책임지지 않는가”, “365일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라는 문구가 1년이 흘러도 가시지 않은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 머물렀던 쉼터 내부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79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안전하게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 ‘수면을 위한 방법’ 등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안내문과 함께, 상담실과 쉼터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스터가 자리했다. 참사의 시간이 멈춘 공



무안국제공항 로비에 희생자수와 같은 179개의 캐리어를 쌓아 만든 추모작품 캐리어179: 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 설치돼 있다. 최기남 기자

간이자 버텨온 시간의 기록이었다. 무안공항 곳곳에는 참사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추모의 계단에는 ‘아픔은 모두 잊고 좋은 곳에서 편

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별이 된 그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손편지가 빼곡히 붙었다.

추모의 계단 앞에는 붉은 우체통이 설치돼 있었다. 이 우체통은 고인을 향한 편지와 다짐을 담아 하늘로 보내는 상징물로, 참사 당일 세워졌다.

공항 내부에는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과 함께 추모작 ‘캐리어 179: 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작품이 참사 희생자들을 마중하고 있었다.

게이트부터 길게 이어진 179컬레의 주인 잃은 신발들은 여행 가방(캐리어)을 향해 줄지어 놓여있고 179명의 여행기방은 5m 높이의 탑으로 세워져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은선 작가는 “못다 한 그들의 여행이 하늘에서 편안히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남아 멈춰버린 179명의 시간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공항 한 칸에 놓인 테이블에서는 파란 리본 배지를 만드는 봉사자들이 나눔 봉사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동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보행공간 전환 성공 열쇠는 ‘프로그램 고도화’”

3~12월 19만명 방문...‘대자보 도시’ 가능성 확인 시교육청·대학·시민단체 등 협력...“도심 속 휴식”

광주 동구가 추진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정책이 19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다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고도화가 관건이라는 과제도 제기됐다.

동구는 29일 청사 3층 집결실에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연구용역 최종보고

회를 열고, 금남로공원~전일빌딩245 구간(540m)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운영한 ‘차 없는 거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저탄소·친환경·보행자 중심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흐름 속에서 금남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보행 중심 공간의 가치를 알리고, 금남로를 ‘마루는 거리’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 슬로건은 사투리 표현과 권기의미를 결합한 ‘겉자잉(ing)’으로, ‘찍어잉’, ‘쉬자잉’, ‘졸여잉’, ‘놀자잉’ 등 공간별 테마를 구성해 매달 다른 콘텐츠를 선보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월 ESG 유소년 축구대회, 5월 어린이날 행사, 6월 길거리 버스킹, 7~8월 여름 물(水) 체험 행사,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원 행사, 11월 광복 80주년·학생독

립운동기념일 연계 행사, 12월 군고구마 파티 등이 진행됐다.

해당 기간 방문객은 총 19만2990명으로 집계됐다.

3월 1만1600여명, 4월 1만1800여명, 5월 2만1000여명, 6월 3만6400여명이 방문했다. 여름 휴가철과 행락철인 7~11월에도 매달 2만6000여명이 금남로를 찾으며 유입을 보였다.

용역 결과, 사회취약계층·협동조합·지역 상인이 참여한 플라마켓을 비롯해 분필 아트존, 어린이·청소년 놀이터,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청년 예술가 버

스킹 공연 등이 어우러지며 체류형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도 호응을 얻었다.

ESG 유소년 축구대회, 어린이날 행사, 거리 버스킹, 여름 물놀이 프로그램, 세계양궁선수권 기원 행사 등 계절·테마별 프로그램도 주효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대학, 시민단체, 보존기관 등과의 협업 역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됐다.

용역 수행진은 향후 과제로 계절·테마별 고정 운영체계 구축과 상시 프로그램 고도화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감히 나한테 욕을 해

만년필...“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과 10대 남자를 때린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재판장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7시 14분 광주 북구 한 건물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 B씨(44)의 목살을 잡고,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또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C군(10)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수원지구 PM 속도제한구역 전동킴보드 시속 18km 제한

광주 광산경찰청은 29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지구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속도제한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 1~3월 운영되는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르는 전동킴보드 관련 사고로 인한 보행자 안전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킴보드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광산경찰이 수원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가 PM 관리 강화에 찬성했다.

경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원지구 일원에 전동킴보드 속도제한구역과 반납 제한구역(지정 주차제)을 광주지역 최초로 도입한다.

속도제한구역은 수원현천에버빌 106동 앞~한양수자인 103동 앞(750m), 수원 롯데마트~솔빛육교(660m) 등 2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PM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 25km에서 18km로 제한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